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8월 18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92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의 이 젊은 날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 현 승 -

저는 독실한 믿음으로 은혜와진리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학교에 출석하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교회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가대에서 봉사하거나 각종 교회학교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나름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한편으로 구속의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신령한 지식과 믿음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에 항상 무한한 기쁨과 감격에서 우리나라 마음이 아니라 더러는 의무감과 습관에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청년이 된 후 당회장 목사님의 강해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열심히 성경말씀을 찾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3,105)라고 한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생명력 있는 말씀의 은혜와 권능을 접한 저는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성경말씀에 저의 생각과 삶을 비추어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저의 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그러한 훈련을 결심한 시점은 2017년 초,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마느냐로 정국이 매우 혼란할 때였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시국과 관련하여 바른 상황 인식과 판단의 기저 위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고 행동하도록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려고 노력하고 진실을 알면 진실 편에서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이라고 강조 하셨습니다.

저는 돌아가는 시국을 보며 잠깐 혼란스러웠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철저히 준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에 부합되지 않고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교구 목사님, 청년 담당 교역자님과 면담하고 청년 ‘153홀리프로젝트 아카데미’ 강의를 자발적으로 수강하였습니다. 기본편과 심화과정 강의를 이어서 듣고 또 실전 글쓰기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지속했기에 성경께서 위와 같은 과정에 적극 임하여 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도록 저를 도와 주셨다고 믿습니다.

153 아카데미의 실전 글쓰기에 참여하던 중에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교회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한동안 중단될까 염려했는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교회의 예배와 제가 속한 청년봉사단교회의 기도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덕분에 계속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적인 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유독 ‘교회’와 ‘예배’에 많은 제재가 가해지는 사실을 직·간접으로 경험을 하였

습니다. 또한 동성애와 동성혼 이슈 등을 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된 우리나라,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체제와 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함께 국가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과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군 복무를 잘 마치고 사회에 나왔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곧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며 성도 간에 다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예배와 모임도 예전처럼 활발히 가지게 되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 영통성전에서 청년봉사단교회의 임원 직분을 맡아 교회와 우리 청년들을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심과 지극하신 사랑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 에베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혼란한 시국 상황에서 잠시 고민하며 기도하는 때가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고 성경적인 바른 신앙관과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진정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신앙과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층 성숙하고 발전하도록 섭리하시며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자랑스러운 은혜와진리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저는 앞으로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은혜와진리교회

-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 02-2632-3731
- 산본: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상동) T. 031-906-3731
- 시화: 시흥시 서촌상가1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로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수원시 장안구 하들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병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전북 정수군 산서면 상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2권 (제2단원 :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 (제10과) 천국의 복음

- 본문 : 마태복음 12:22-30
- 요절 :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
- 찬송 : 222장(새찬송가 235장), 495장(새찬송가 438장)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목적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수 천년 동안이나 메시아의 통치를 고대해 왔던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다가올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요한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번째 메시지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4:17)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천국은 복음의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마 4:23).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귀신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을 데리고 오자 고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고침 받은 사람이 말을 하며 앞을 볼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다 놀라며 이구동성으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리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으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상상 속이나 막연한 기대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임하였으며 현재 여기에도 실재하는 것입니다.

2.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세상 나라가 임하듯이 총과 대포로 무장한 군대라든가 요란한 선전과 거창한 외형을 갖추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가운데서 영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눅 17:20~21).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천국은 외형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씀대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이 세상에 천국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은 내어 쫓기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죄 사함의 역사가 계속되며,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천국이 이 땅에 실재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3. 천국은 계속해서 전진하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마 13:31~33)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천국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겨자씨와 누룩이 매우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나중에는 처음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엄청난 결과를 맺는다는데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 속에 생명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마치 천국의 속성과 같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자라납니다. 천국 복음은 나사렛에서 미약하게 시작되었지만 약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숱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크게 자라서 전 세계의 인류를 그 품에 포용하리만치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천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하여 마치 무성한 나뭇가지처럼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천국 시민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로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 때까지 천국 복음을 힘써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방송통신 선교에 적극 동참합시다!”

비전 VISION 인터넷과 Mobile을 넘어 A시대로

정보통신 미디어를 통한 Global선교 사역 감당

인터넷/스마트폰/온라인 방송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내외 동시예배 지원과 선교 지원

성도들의 영적 성장 도모

기도/물질 후원회원 50,000명 이상 확보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작 지원

교회내 IT Control Tower 역할 수행

전 성전 PC/Network 장비 및 Software 운영 지원



주요업무 Key responsibilities

정보통신선교회

- 방송통신선교 사역의 비전 및 전략 수립
- 교회 각종 홈페이지 운영 및 개발
- 교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온라인 방송 시스템 구성 및 운영
- 스마트폰용 각종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송통신선교회

- 방송통신선교 사역 홍보
- 지성전별 방송통신선교회 운영
- GNTC TV 프로그램 홍보
- 방송통신선교후원회 운영 및 후원자 관리
- 인쇄, 방송, 스마트폰 등 매체별 활용을 통한 전도 사역

GNTC TV

- 온라인 방송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 인터넷 방송국 운영 및 관리
- 국내외 선교를 위한 방송 제작 지원

방송통신선교사역에 뜻이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선교 기획
- 개발 (디자인, 프로그램, Ai, 네트워크)
- 방송 (카메라, 음향, 영상편집, 기획 등)
- 후원회 관리

[연락처] 031-443-3757

메일 : gntckorea@gmail.com

방문 : 투르스빌딩 7층 정보통신선교회 (각 성전 방송통신선교회)

